

開闢 -1921. 03. 05

東洋道學의 體系如何(上)

姜春山

緒言가티 한마디

우리가 이 世上에 處身하고 이 社會에 立脚하여 이 生을 完遂코저 하면 過去로부터 現在에, 現在로부터 未來에 까지 上下千載를 俯仰하고 東西萬里를 縱橫하면서 知하고 信할 것은 棼夥多하겠다마는 무엇보다. 먼저 知할 것은 我가 我的 스스로를 知함이며 무엇보다. 먼저 信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信함이라 하노라 온갖 일에 我를 中心으로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布施하며 우리를 土臺로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裝飾하라. 그리하여야 於是乎 우리의 知力은 完全無缺한 調和式이 되겠으며 우리의 信力은 充實無僞한 健全體가 될 것이다.. 그러나 今日 우리의 大部分은 急吹하는 外來空氣의 催眠을 맞고 暴食하는 舶來料理의 滯症을 만나 모든 것에 다. 못 西洋이 有한 줄만 知하고 다시 東洋이 有함을 知지 못하며 남의 것이 有함만 信하고 다시 우리의 것이 有함을 信치 못함과 如하다. 아니 남만 알며 미드라 할 것 뿐이오. 어느덧 自己 스스로를 忘却코저 하나니 此가 實로 우리의 常識上弱點임과 同時에 어찌 知者의 太息할 바 아니리오. 그런데 今日의 모든 科學上發達에 在하여는 어찌케보면 西洋이 獨步하였다. 할는지 未知어니와 오즉 道學上으로는 西洋도 西洋스스로가 有하겠지만 東洋은 東洋스스로가 有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點에서는 東洋便이 활신 優勝하다. 하야도 過言이 아닌 줄로 斷言하노라. 아—果然그러하다.. 東洋自來의 모든 道學이야말로 자못 絶頂에 達하였다. 할 수 있나니 少하여도 半萬年동안 東洋天地의 運命田을 此로써 開拓하였으며 億千萬歷代民族의 思想界를 此로써 支配하여왔다.. 回顧하라. 這間모든 國家社會와 倫理道德과 其他 온갖 禮樂刑政이 一이나 此에서 起點하고 發程치 안흔 者 有한가. 그런즉 今日의 우리는 아모리 西洋의 모든 것을 學한다. 할지라도 自我充實의 必要上먼저 나부터 知하고 우리의 것부터 信할 우리라 하면 不可不東洋스스로부터 知하고 信하여야 하겠으며 東洋스스로를 知하고 信하라면 不可不東洋道德의 何如를 研究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茲에 東洋道學의 來歷을 簡明히 示하여써 스스로를 重視하는 滿天下 우리의 一覽에 提供코저하는바

(一) 體裁 上, 中, 下三段으로 함

(二) 體系 儒家, 道家, 墨家, 楊家, 折衷波, 法家,

(三) 範圍 宇宙法說-哲學-道德-倫理-政治

周易의 定義

一. 宇宙의 法則

龍雜萬象은 彼此散漫하야 何等의 作定이 無함과 如하나 此를 諦察한즉 一定流行하야 整然不渝하나니 此는 不易의 不易됨으로써 1라 그런데 此不易의 不易됨은 一陰一陽의 所行에 不外하나니 是卽無上の 抽象法則으로 最普遍的 이다.. 易에 曰『一陰一陽之謂道』라 하야 一切의 事象은 此法則에 配司치안 는 者 1無하다. 하엿도다.

易의 作者 1最히 明白한 標徵을 擧한바는 日月의 交代와 四時의 往來와 晝夜의 推移와 或은 男女, 上下, 吉凶, 禍福等說을 全然相對的으로 立한 概念 이니라 宇宙間에 存在한 千變萬化를 總히 法則的으로 觀察하더라도 亂絲와 如히 種種不一하야 頗히 複雜에 複雜을 加하엿스나 皆此原理에 不遵한 者 1無하나니 繫辭傳에 曰『天尊地卑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 在天成象, 在地成形矣』라 함이 此를 謂함이로다.

竊惟컨대 吾人으로 更進하야 此法則의 流行을 觀하라. 一은 時間的으로 宇宙萬物에 就하야 論究하고 一은 空間的으로 具體的 物象에 就하야 論究함이 可하니 易에 曰『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라 하엿도다.. 太極은 無差別平等이니 是卽陰陽이며 四象은 卽四時 1요, 八卦는 卽天, 地, 雷, 水, 山, 風, 火, 澤이라. 詳言하면 宇宙는 無差別平等으로 漸漸差別을 生하고更히 四時를 轉한 後, 八者 1塊然히 形을 成함으로 看做함이라. 八卦以上으로 此를 更分하야 十六이 되며, 竝아서 三十二, 六十四, 百二十八이 되어 畢竟萬物の 類에 到하나니 是 1卽 易에 萬物은 類라. 云한 所以로다.

相對한 甲乙兩者가 有한데 甲은 陰이요. 乙은 陽이나 此를 一括하야 他에 比할 時는 亦是陰陽의 關係를 發見하갓스며 又此에 對峙한 者를 一束하야 他에 比할 時는 又陰陽의 關係를 發見함을 得하나니 如斯히 推究할 時는 殆히 그 際限을 不知할지로다. 然하나 最初의 相對者如何를 思考할 時는 彼等은 大히 一致한바 1有하야 但異한바는 相對峙한 點에췌 在함을 知할만하도다.. 是 1卽 個性의 差異니 例하면 君臣은 君臣으로서는 相對峙하나 同一人類로써 女性에 對할 時는 男性이며 女性, 男性을 又一括하야 禽獸에 比할 時는 人類이며 禽獸, 人類를 更이 一括하야 天에 對할 時는 陽이니라.

말미어 君臣, 男女, 人類, 禽獸 等の 抽象的 概念에서만 然한 者 1아니요. 個性의 具體的 物象에서도 亦然하다. 例하면 甲物과 乙物에 陰陽의 關係를 有하고 兩物을 一括하야 他에 比하면 又陰陽의 關係를 發見할지니 是亦易에

서云한바 萬物은 類된다 한 所以의 理니라.

晝夜의 一定不變도 陰陽의 流行이며 四時의 永久推移도 亦陰陽의 流行이니 進動의 長短如何를 勿問하고 此法則에 由行치 아님이 無하도다. 例하면 同一한 晝라도 陰陽이 有하며 同一한 夜라도 陰陽의 關係를 分할지니 是 | 易에서云한바 天地는 類라云한 所以이로다.

以上에 述함과 如히 物象에던지 進動에든지 畢竟은 陰陽에 司配치안함이 無하니 卽 易의 根本思想으로써 萬物을 類的으로 觀察한다 함이 此를 謂함 이로다. 此根本思想으로부터 吾人은 倫理及占筮의 觀念을 演繹함을 得하나니 倫理는 陰陽其者된 倫의 性質을 取하여 演繹한바 | 오占筮는 陰陽의 關係를 卦爻에 示한 者로다.

二. 道德論

陰陽의 性質이 二가 有하니

(一)陰陽은 相須하여 於是乎宇宙의 構造를 維持함을 得하며

(二)陰陽은 陰陽으로의 差別이 有치 아니치 못함으로다.

第一의 原理를 更演하면 卽 君臣은 相待하여 事를 成하며 父子는 相待하여 一家를 成하며 夫婦는 相待하여 一家를 成하며 兄弟는 相待하여 亦利를 成한다 함이요. 第二의 原理를 更演하면 卽 君臣의 義, 父子의 親, 夫婦의 別, 長幼의 序, 朋友의 信이 是로다. 實아서 君은 常히 君되지 안함이 不可하고 臣은 常히 臣되지 안함이 不可하며 父는 常히 父되지 안함이 不可하고 子是 常히 子되지 안함이 不可하나니 夫婦, 長幼, 兄弟, 朋友도 皆如是하도다.

三. 八卦生成의 由來

繫辭傳에云하되『古代伏羲氏之主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이라 하엿도다. 그리고 보면 天地萬象이 其大로부터 小에 至하기까지 陰陽된 一原理에 由하여 司配된 所以를 示하면 卽爻를 積함에 在할 뿐으로 此를 八卦에 止케



한 所以를 探究하면

(ㄱ)天, 地, 人三才는 古代에 對한 標準概念인바 今의 八卦는 各三爻니 是類에 該當함으로 此에 止케하엿스며

(ㄴ)八卦는 自然物象에 取할 時는 天, 地, 風, 雷, 火, 水, 山, 澤이니 自然物象中 가장 顯著한 者이며 竝아서 當時의 標準概念이라. 五行或은 四大로써 根本主義로 함과 如하도다.

四. 八卦의 意味

八卦는 如斯히 標準概念이니 天地間에 存立한 根本的 物象이라. 一切現象은 八卦의 蕩成에 不外하나니 繫辭傳에 云『剛柔相摩 八卦相盪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라 하엿스니 此卽一切現象은 雷霆風雨日月의 化醇한바됨을 述함에 不外함이로다. 換言하면 八象互働의 結果된 所以를 述함이로다.

八卦에 三爻가 各有하나니 二陰一陽 或은 一陰二陽이 是ㅣ라. 其一된 者ㅣ卽一卦의 主가 되나니 一卦의 性은 主의 性에 遵하는 故로 陽爻一, 陰爻二된 者는 陽主로써 陽卦가 되나니 震, 坎, 艮이 是ㅣ며 陰爻一, 陽爻二된 者는 陰主로써 陰卦가 되나니 兌, 離, 巽이 是ㅣ며 其 餘乾은 陽이요. 坤은 陰이라. 故로 八卦를 重하면 陰陽往來의 理ㅣ斐然히 其間에 表하나니라. 宇宙의 變動은 此를 八卦에 徵할지라.

그런데 八卦의 上下二爻는 内外의 象이 有함과 同時에 陰陽의 理를 炳顯하여 又 三才는 各陰陽을 具한 觀念에 本하니 說卦傳에 云하되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이라 하엿도다. 此와 如히 一切의 行動은 此를 八卦에 現하고 八卦의 變動은 卽 事實의 眞相에 符合하나니 此 卽

自然界的 法則은 陰陽임과 共히 八卦도 亦陰陽임에 不外함으로써니라.

五. 占筮와 八卦의 關係

八卦의 變動은 自然의 進程을 表形한 者이니 未來에 對한 事變도 預知할 수가 有하다. 然이나 是皆普遍的으로 立言하며 或은 測定함에 不外한 者다. 易에 曰『是以君子將有爲也 將有行也 問焉而以言 其受命也 如嚮无有遠近幽深 遂知來物 非天下之至精 其孰能與於此』라 하였다. 然이나 此는 客觀的으로 萬能의 一神이 有하여 能히 此를 指示한다. 함이 아니요, 그의 心을 鍊하여 無差別平等의 域에 到達할 時는 自然感動한다 함이었다. 故로 曰『極天下之顯者 存乎卦 鼓天下之動者 存乎辭 化而裁之 存乎變 推而行之 存乎通 神而明之 存乎其人 默而成之 不言而信 存乎德行』이라 하고 朱子ㅣ此를註하여曰『卦爻所以變通者在人 人之所以能神而明乙者 在乎德』이라하다.

六. 結 論

「節園天地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通晝夜之道而知之 故神無方而易無體」라 함은 繫辭의 易을 贊한 言이로다. 그런데 繫辭는 主要히 卜筮를 述한 者ㅣ라. 卜筮의 道는 八卦의 運用에 在하고 八卦의 運用은 實로 普遍的으로 宇宙의 法則 人事의 進行을 含蓄한 者이었다. 말미어 易의 本色이 全히 此處에 在하도다. 三百六十四爻는 그의 大畧을 示한 者으로써 此를 易哲學의 眞髓라 한다.

略言하면 易은 天地의 進動을 六爻의 間에 模寫한 者이라. 그러나 此普遍的 進動을 特別한 境遇에 應用할 時는 其勢ㅣ果然神秘的임과 如한 同時에 人으로 하여곰 占筮의 信憑心を 惹起케 되나니 此가 即易의 弱點이라. 云치 아니치 못하겠도다. 要컨대 易은 占筮의 根本에 對하여 成功하고 人事를 占함에 對하여 失策한 者라 하야도 過言이 아닐 줄로 思하노라.

古 代 哲 學

古代哲學은 孔老의 時에 起하야 周室에 終하니 其說은 大盖社會維持의 觀念을 忠으로 삼고 湧起한 者임으로써 天下를 平定함에 必用이 有하다. 論議한者ㅣ니 그 名目を 擧하면 左와 如하다.

甲. 儒家 乙. 墨家 丙. 道家 丁. 楊家 戊. 折衷派 己. 法家 庚. 思索派
是 等은 各一旗幟를 立한 者로 各個의 間에 顯著한 間隔이 有하얏도다.

甲. 儒家

一. 孔子 (傳并書)

孔子的 名은 丘요. 字는 仲尼니 魯人이라. 周靈王二十一年十一月에 生하니 西紀元前 五百五十一年이라. 西洋哲學史에 冠位되는 싼쓰의 死去보다 僅一年을 先하였다.

일즉 魯에 仕하고 列國에 周遊할새 匡에 畏하고 宋에 危하며 鄭衛에 彷徨하고 陳蔡의 間에 窮하다가 六十八歲에 魯에 歸하여 禮를 修하며 樂을 正하고 春秋를 筆削하며 西狩에 麟을 獲함을 見하고 淚를 拭하여 筆을 此에 絶하고 周敬王四十一年에 卒하였스니 年이七十三이었다. 其間에 西洋에는 希臘大賢 소크라테스가 生하였다. 그리고 唐의 玄宗이 孔子를 謚하여 文宣王이라 하고 宋의 眞宗이 更히 至聖二字를 加하여 至聖文宣王이라 謚하다.

孔子는 別로 著作이 無하고 그 思想을 見할만한 者는 오즉 論語뿐이나 此亦二,三 門人이 錄言한 者이니라.

- 孔子 이전의 洪範組織은 如左함-

- 一. 五行... 水, 火, 木, 金, 土
- 二. 五事... 貌, 言, 視, 聽, 思 恭從明聰容
- 三. 八政...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冠, 賓, 師
- 四. 五紀... 歲, 月, 日, 星辰, 曆數,
- 五. 皇極... 皇建其有極
- 六. 三德... 正直, 剛克, 柔克
- 七. 稽疑... 雨, 霽, 蒙, 驛, 克, 貞, 悔
- 八. 庶徵... 雨, 暘, 燠, 寒, 風
- 九. 五福...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

그런데 孔子는 周公을 學한 者임으로 그 主要한바는 卽 禮니라. 一方으로는 自己의 德을 養하고 또 一方으로는 禮로써 天下를 治하는 法을 學하였도다.

(가) 人格의 完成 (一) 孔子敎의 主眼은 人格의 完成이니 個人으로써 圓滿한 發達을 成코저함에 在하니라. 말미어 그의 弟子中 몸소 六藝를 通한 者 七十二人에 子路 子貢 冉有 子遊가 有하여 皆政治에 手를 下하여 其績을 頗 舉하였슴에 不拘하고 호을로 顔子를 許하사 其心이 三月을 仁에 違치 안는다 하였스니 此로써 보건대 孔子로 하여곰 治國平天下에 쏜 止한 者]라 謂 함은 아즉 孔子를 知치 못한 者라 하겠다.

(二) 孔子가 既히 人格의 완성으로써 그 主眼을 삼은바 人格의 人格된 所以는 그의 社會的 行爲의 圓滿無缺함에 在하니라 然한데 社會的 行爲는 皆是一定不易의 形式으로써 表彰한바이니 所謂經禮三百 威儀三千이 即是니라. 故로 孔子의 敎學에는 禮를 修함으로 第一綱目을 삼았다. 換言하면 一切의 行動은 모다 오즉 禮에 由코저함이였다. 卽 孔子-顔子에게 告한 말슴에 云하였스되 『禮-아니어던 視치 말며 禮-아니어던 聽치 말며 禮-아니어던 言치 말며 禮-아니어던 動치 말나』 하였고 又曰 『恭하고 禮-無하면 勞하며 愼하고 禮-無하면 亂하며 直하고 禮-無하면 絞타』 하였나니 更言하면 恭, 愼, 直은

皆是美德이 아님은 아니나 禮가 無하면 그 惡結果를 生한다 함이니 그런즉 孔子의 敎는 禮 一字로써 그 全般을 蔽한 者-니 孔子曰禮에 立한다 함이 此를 謂함이라, (三) 然한데 禮는 知識에 屬한 者인 故로 此를 實行할 者는 卽意로다. 意는 或倫理的으로 動하기도 하고 或生慾的으로 動하기도 하나니 此에 對하여 意志의 衝突은 一個의 精神界에 行할지라 苦此를 避코저 하면 爲先意志의 鍛鍊이 無치 못할지니 是卽孔子敎의 眞相이니라 孔子의 門人子夏는 賢한 이를 賢히 여기되 色으로 易하며 부모를 事하되 能히 其身을 竭하며 君을 事하되 能히 其身을 致하며 朋友로 더불어 交하되 言이 信이 有하면 비록 가르되 學치 안흐나 나는 반듯이 學하엿다. 謂하리라 하얏스며 尙且 意志를 鍛鍊하는 第一의 法을 音樂으로써 爲主하얏나니 大抵音樂이 人性을 陶冶하는 功이 有함은 古今 東西人의 共認하는 바이라. 몬테쓰큐가 嘗謂하엿스되 音樂은 獰惡한 人性을 和하여 和氣藹然케함을 得한다 하엿도다. 그리고 荀子는 曰夫聲樂은 人에 入함이 深하고 其人을 犯함이 速하다 하고 又曰樂이 中平한즉 民이 和하여 流치 안흐며 肅莊한즉 民이 齊하여 亂치 안는다 하엿스니 此 卽 孔子-樂에 成한다. 云한바-니라. 何者오 하면 이것이 곳 知識과 意志와의 精密히 和合하는 것을 示함이니 所謂七十에 心の 欲하는바를 從하여 規矩를 不踰한다 함은 此를 示함이라. (四) 此鍛鍊된 意志를 名하여 仁이라 하나니 仁은 無差別의 境界로써 卽絶對의 我가 精神界를 統一한 者이로다. 智던지 勇이라든지 畢竟此중에 包含되지아닌 者-無하나니 故로 曰仁者는 반듯이 勇이라. 有하고 勇者는 반듯이 仁치 아니치 못한다 하며 又智는 형식적이나 仁은 單히 形式的뿐 아니요. 또한 實在의 仁으로 智-及하고도 仁이 能히 守치 못하면 비록 得하나 반듯이 失한다 하엿나니 此는 廣義와 狹義의 二個仁이 有함이었다. 狹義의 仁은 智와 勇과 相對立한 者임으로 曰仁者는 患치안흐며 智者는 惑치 안흐며 勇者는 懼치 안는다 하엿도다.

(나) 仁의 演繹 (一) 仁은 此와 如히 人의 精神內에 在한 絶對의 德으로써 一切의 德은 仁의 分化에 不外하나니 此域은 果然無差別平 等으로 何等指定 할만한바-無하며 何等認識할만한바-無한 者이라. 故로 曰天何言哉아 四時-行하며 百物이 生한다. 하엿스니 「何言哉」의 意를 詳히 分析하면

- 一. 自然界는 一個의 活動體가 되는 事
- 二. 規則이 整然한 事

의 二個觀念을 包含한 것을 可見할지니 是-亦仁, 其者를 형용한 者-로다. 孔子-至大至高의 觀念에 到達하여 精神界가 統一된 事는 卽此를 自言하여 曰吾道는 一(仁)로써 貫한다 하셧도다. (二) 是 卽 解脫의 境域으로써 應用無礙하여 言에 理-아님이 無하며 行에 善이 아님이 無하니라. 그런데 저-忠, 孝,

信이라하는 相對的인 仁은 皆一 個의 仁으로 原因한 것이다. 그림으로 君, 親, 朋友, 妻, 兄弟에 對함을 詳히 忠, 孝, 信, 別, 友가 實現되나니 如斯히 發見의 方面으로 觀할 時는 種種의 區別이 有함과 如하나 詳細히 考察하고 보면 假令 忠으로도 他四者를 包容치 安하면 眞正한 忠이라. 謂치 못할지니 換言하면 此五者의 互相關係함이 忠이 아니면 孝라. 謂키 不能함과 如하다. 이것은 卽 倫理的 法則은 그 根本이 同一한 明徵이니라. 말미어 孝經에 云한바 『大抵 孝는 親을 事함에서 始하고 君을 事함에서 中하고 身을 立함에서 終한다.』 하엿도다. (三) 仁은 無意識이니 知意와 一致치 安한 意識이니라 故로 孔子의 敎는 意識界로부터 無意識界에 進入한다. 云할만하다. 前述함과 如함은 卽 貫通의 域에 到達치 安한 時의 談에서 불과한 것이다 하여도 過言이 아닌 줄 思하노라.

(다.) 仁의 社會에 對한 發見 大抵 社會에 一定의 法則이 無하면 何로 由하야 그의 生存을 維持하라 野蠻의 民族이 그 生을 維持함도 猶且 一定의 法則이 有하야 其然하나니 此等 法則은 各人에 由하야 反覆되며 各人 同一의 標準을 從하야 相調和함을 得할지니라. 若不然하야 各人이 別異의 標準을 取하고 互相衝突할 時는 社會가 無하다. 云하여도 可할지니 그림으로 社會는 一定의 法則에 由하야 維持되며 此等 法則이 該社會에 對한 髓腦的인 되는 者-아니면 不可하니 卽 倫理的 法則이 是니라. 倫理的 法則은 實로 社會를 經緯하는 所以로써 前欸에서 詳論함과 如히 畢竟 一本에 歸着할만한 者이라. 然한데 社會는 卽 一個의 活動이라. 此活動이 倫理的 法則에 從하야 活動할 時는 卽 忠이 되며 義가 되며 勇이 되며 此가 卽 分流치 安할 時는 純粹 無差別로 是 卽 仁이니라. 仁은 個人의 性質에 可能性으로 存在하고 不仁 社會의 腦髓를 破壞하는 바이로다. 그런데 個人의 性質에는 矛盾的으로 相預想하는 그 方面이 有하야 一은 純美한 社會의 基礎가 되고 一은 社會의 秩序를 麻亂케하는 者-니 社會의 治亂盛衰는 究竟, 個人性에 基礎한 者라. 是-즉 儒敎가 後來性論으로써 中心이 된 眞相이로다.

如斯히 孔子敎는 人格完成을 期한 者임으로 人格의 完成이라함은 卽 智, 情, 意의 融合한 者를 云함이니 孔子와 如한 者-그 模範이로다. 盖 孔子는 人生以外에 別로 精靈의 實在가 有함을 信치 安하엿스니 『天生德於予』라 하는 又 『天之將喪斯文也』라. 云云한 時의 「天」은 自然或은 運命의 意味에 不外하며 鬼라 云하며 神이라 云함은 卽 祖先의 靈을 指한 者-니 『祭神如神在』라 하고 又 『非其神而祭諂』이라 云함이 是니라.

孔子의 門人

社會保全의 道를 擧하야 極致로 삼은 者는 其唯孔子의 道로다. 當時其門에 及한 者-三千人과 身으로 六藝를通한 者는 七十餘人이라. 其中道統의 淵源될만한 者數人을 擧하면

(一) 顏淵 孔子曰回也는 其心이 三月을 仁에 違치 안는다 하였고 그 死함에 及하야 孔子-哭之慟하사 曰『天이 我를 喪하엿다. 天이 我를 喪하엿다.』 하였스니 이 두어 가지로 見하여도 顏子는 孔門에서 最有德의 君子로 稱하엿슴은 可히 認知할 수 有하도다.

(二) 曾參 孔子-일즉 參에게 謂하야 曰 吾道는一(仁)로써 貴한다 하섯도다. 孔子의 道-大하야 端아키 不能함과 如하나 其中에 一貫의 條가 有하니 此를 知함은 果然孔子敎의 髓腦를 知하는 者라 할지라. 故로 孔子-此를 論하고 此를 敎함은 想必 曾子에게 道를 傳함이 足하다 함이 分明하도다. 뿐만 아니라 後人이 認하되 曾子의 門에 子思가 有하고 子思의 門에 孟子가 有하다 하나니 此로써보면 曾子는 孔子의 道統이라 稱치 안을 수 업다.

(三) 子思 (傳并書) 孔子의 年이 十九에 宋의 弁官氏에게 娶하야 一歲後에 伯魚을 生하니 魚가 生하매 魯昭公이 鯉魚로써 孔子에게 賜한대 君의 賜을 榮하기위하야 更名日鯉라 하고 字를 伯魚라 하다. 年이 五十에 孔子보다 先卒하니 卽 孔子의 六十九歲에 當하니라 然한즉 子思의 生은 未詳하나 何如던지 孔子의 年이 七十以前이 될 것은 事實이갓다.

子思의 來歷은 史傳에 未詳하나 劉向說苑에(漢詩)曰子思-衛에 在하야 若한 生活이 莫甚한대 田子方이 狐白裘로써 贈하거늘 不受하다 하였고 晩年에 魯穆公의 師가 된바 (此는 孟子檀弓藝文志에 出)즉 七十有餘의 壽를 保함과 如하며 또 子思는 何人에게 學하엿는지 역시 未詳하나다 못 韓愈가 送王墳序에 云한바「子思의 學이 대개 曾子에서 出하엿다.」 하니라.

孔子의 敎學은 仁이라. 仁은 名象키 不可하고 又理論에 由하야 證明할만한 者도 아니라. 譬컨대 基礎가 無한 建築과 如하나니 此가 그의 弱點이라. 此를 老子의 根本의 宇宙설에 比하여 보면 그 軟弱의 感이 不無하도다. 此에 對하야 子思는 理論의으로써 宇宙를 說破한바 人倫이 卽宇宙必然의 法則임을 試하엿나니 中庸의 主意는 卽 此에 在하니라. 故로 曾子는 더욱 孔子의 直接門人이라. 故로 社會的 文字를 用하야 此를 忠恕라 하엿스나 子思는 更히 普遍的 文字를 用하야 此를 誠이라 云하엿스니 前者는 社會問題요. 後者는 宇宙問題이라. 前後二者가 矛盾됨은 아니나 決코 同類에 列할 者는 아니 엿다. 말미어 中庸은 實로 儒敎哲學의 淵源으로써 孟子를 通하고 荀子를 通하야 滔滔千有餘年에, 宋代에 至하야 大히 陶冶된바 大波濤를 倒起하얏고 降하야 明에 至하야 止하니 그 支流는 極多하야 其一은 朝鮮半島의 精粹한 江山人物과 한세 盤鬱하고 또 그의 支流로 日本에도 餘波하니라

本 論

(가) 形而上學 孔子的 仁은 倫理的 統合의 概念이니 即聖人の 本能이라. 曾子는 此本能을 觀破하여 忠恕라 하여 忠恕는 人類社會를 維持하는 者-라 칭하였으나 子思는 誠 一字로 此를 形容하고 更進하여 此로써 各人の 本性이라 하였다. 苟人이 無意識의으로 行動할 時는 行에 뜻지아님이 無하나니 故로 曰『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教』라 하였다. 思컨대 此가 即 人性의 先天的으로 彝倫을 俱備한 所以를 獨斷함이니 後世儒教哲學의 根本은 全히 此에 在하다 할지로다. 中庸은 그 思辨的 進動에서만 單留함이 아니라 諳아서 吾人の 性質上動하여 彝倫에 合치 아니한 者-無함은 恰然히 鳥가 空에 飛하며 獸가 地에 走하며 或은 草木이 陽春에 笑하며 雪霜이 冬陰에 凝함과 如한지라. 是 等은 皆無意識의으로 能然하나니 그 能然하는바를 遡究하면 即誠되는 一個素性の 發現에 不外하도다. 如斯히 一切萬物은 畢竟誠一字뿐이라. 故로 曰誠者는 物의 始終이니 不誠이면 無物이라 한다.

又曰『至誠은 無息이라 不息則久하고 久한즉 徵하고 徵한즉 悠遠하고 悠遠한즉 博厚하고 博厚한즉 高明이라』하였다. 然하면 誠은 一切萬物의 本城임과 共히 또 人의 本性이라 한다. 以上과 如히 子思는 倫理的의 意義를 有한 誠으로써 此를 宇宙의 根本主義라 하고 諳아서 各個體의 本性이라 하였나니라. 然하나 子思의 眼中에는 倫理的 法則과 物理的 法則과 生理的 法則과 天性的 法則과는 皆同班에 列하였나니 그 發現의 方面으로부터 見하면 千差萬別이 有하다 하겠으나 能히 그 根本에 立케할 時는 畢竟同一의 道에 歸하는 者로써 此를 誠이라. 名할 外에는 他道가 無하고 此로써 一次 性の 觀念에 到達하는 者는 即佛門에서 所謂無我의 域에 到達한 者로써 自然과 異한 事-無하니라. 惟컨대 子思는 飄然히 宇宙問題에 涉함은 孔子의 夢치도 안흔바와 如하다. 孔子의 說한바는 오즉 社會內人情上事에뿐 或은 詩書禮樂에뿐 止하였스니 子思의 說과 比하면 그 大小, 廣狹, 深淺의 差가 當如何타 할고

(나) 倫理學 (第一元論은 誠第二元論은 知行)

所謂誠은 即性일 것뿐이나 此外人類에는 반듯이 知와 行이 有하다. 그런데 知라 함은 物象을 識別하는 바-요. 行이라함은 此를 行爲에 發表하는 바이로다. 更言하면 人類의 本性은 誠이라 하나 그 誠되는 事를 不知하는 者-有하니 於是乎教育의 必要가 生하며 或은 此를 知한다 할지라도 行키 不能한 者-有하니 此에는 薰陶의 必要가 有하여야 한다. 果然하면 此知와 行과는 誠의 發現을 妨碍하는 者라云치 안흐면 不可하다. 二者는 誠과 그 腦髓가 相異치 아니치 못할지라. 若腦髓가 同一하다 하면 決코 相調和키 不能할지니 此에 至하여는 子思의 建設한 第一元論은 破壞되어 第二元論으로 되지 아니치 못

하겠도다. 卽 一方으로는 倫理的 實現性和 또 他方으로 此를 防碍코저하는 者가 卽 是로다.

結 論

倫理의 本原에는 誠이 有하며 誠은 宇宙의 根本主義니 孔子敎는 此에서 비릇오 基礎를 得하얏도다. 誠은 此世界의 原動되는 同時에 또 知識的 方面을 有한 者-나라. 此點에 在하야 能히 美國哲學者하밀톤의 無意識的 實在와 相似함과 如하나 然이나 倫理的 意味가 有함으로써 貫徹키 不能하고 遂히 矛盾을 招하야 二元論이 되었나니 此二元論은 宇宙問題에 對한 者-아니요. 心理的 二元論이로다.

孟 子 (傳并書)

孟子는 鄒人이니 名은 軻-요. 字는 子輿-라 幼하야 三遷의 敎를 蒙하얏고 長하야 子思의 門에 業을 受하야 道가 이미 通하매 魏에 適하며 齊에 遊하야 仁政으로써 遊說할새 唐虞三代의 德을 述하니라. 그런데 그의 生年月에 就하야는 古來諸說이 紛紛하야 未詳하나 (予-孔子의 徒-됨은 未得하얏스나 人에게 私淑하얏노라)의 自白으로 推觀하면 親히 子思의 門에 及치 못함과 如하도다. 또 蔡孔忻의 孟子年譜는 孟子의 生年月日을 定하얏스되 周烈王己酉四月二日이라 하니 是-孔子의 卒去後百七년에 當하다. 孟子는 蘇張과 同時生으로 諸侯의 間에 馳騁하얏스나 그 說한바는 互相冰炭의 相容치 못함과 如하야 恒常蘇張의 徒를 視하기를 犬豚과 如히 하얏다.

本 論

(가) 善은 人의 性이라. 孟子가 子思의 學統을 繼受한 事-確乎無疑함은 事實이다. 二說이 相一致됨을 例舉하면 左와 如하다.

『孟子-曰親을 悅케 함이 道-有하니 身에 反하야 誠치 못하면 親을 悅케 못 할것이요. 身을 誠함이 道-有하니 善에 明치 못하면 其身을 誠치 못하니 是故로 誠者는 天之道-요. 思誠者는 人之道-라. 至誠이면 動치 못할 者-未有多 不誠이면 能히 動할 者-未有-라』 하얏스니 是가 中庸의 文과 正相似하나니 中庸第二十章에 曰『親에 順함이 道-有하니 身에 反하야 誠치 못하면 親에 順치 못하며 身을 誠함이 道-有하니 善에 明치 못하면 身에 誠치 못하리라. 誠者는 天의 道-요. 誠하는 者는 人의 道-라 하얏고 又曰其心を 知하는 者는 其性を 知하고 其性を 知하면 天을 知하나니 其心を 存하고 其性を 養하면 卽 天을 事하는바-라 하얏고, 又曰萬物이다. -我에게 備하나니 身에 反하야 誠하면 樂이 此에서 大함이 無한바 人性은 卽 天됨을 主張하얏스니 此亦中庸에 云한바 『天下至聖이 되어야 能히 其性を 盡한다.』의 章과 符合하

도다.

孟子又曰動容周旋은 中禮盛德의 至라 하엿스니 此는 中庸에 云한바 『誠者
는 勉치 안해도 中하며 思치 안해도 得하여 從容中道-聖人이라』 함과 其意-
相同하나니 是로 由하여 觀하면 孟子는 子思의 門에 學하엿다 함이 無根의
說이 아님이 분명하도다. 孟子는 子思와 同一의 誠으로써 人의 性이라 하엿
나니 然하면 誠이라함은 如何한 者인가 誠은 畢竟倫理法則에 淵源한 者이요,
倫理法則은 社會에서 善타하는 바-로다. 그럼으로 孟子는 師說을 從하여 人
性으로써 善이라 斷定하엿나니라.

그리고 惻隱, 羞惡, 辭讓, 是非의 四端을 不忍人之心이라하여 人이 此四端이
有함은 其四體가 有함과 如하다 하여 卽 仁義禮智는 先天的으로 具備하엿다
고 明徵하니라. 詳言하면 孟子는 卽先天良心論者-라. 말미어 其言에 曰『人
의 學치안코 能한바는 者는 其良能이요. 慮치 안코 知하는바는 其良知니 孩
提의 童이 其親을 愛할 줄 知치 안함이 無하고 其長에 及하얀 其兄을 敬할
줄 知치 안함이 無한지라. 親을 親히함은 仁이요. 長을 敬함은 義-니 此는
無他라. 天下에 達한者 -라』 하니라.

(나) 慾 如斯히 論하면 孟子는 又子思와 同一한 困難을 當치안키 不能하다.
何者오. 人性은 善타 하엿스나 日常人類의 行動은 往往히 倫理의 範圍를 楚
越함으로써-라. 更言하면 人의 本性은 善하나 此를 蔽하는 者가 有한 故로
其善의 發揮를 不得하나니 此를 蔽하는 者는 卽慾이라 한다. 그럼으로 心을
養함은 寡慾에서 善함이 업는 바 孟子는 先天 良心論의 觀點으로부터 慾을
如左히 斷定하엿다.

一. 良心에 此하여 根本心이 아닌 事

二. 善을 制止하는 消極的 性質이 有하니 活動하여 行動에 現할만한 積極的
의 性質이 有치 아니 하니라.

그러나 苟者는 此와 異하여 慾으로 積極的의 性質이 有한 者-라 하여 倫理
的 法則은 此를 制抑하는 消極的 作用에 不外하다 하엿도다.

(다.) 修身論 此에 至하여 吾人은 先히 修爲의 何者됨을 得할지니라. 吾人의
修爲는 畢竟我가 我의 本心을 發揮함에 宜在할 것뿐이니 진실로 此를 發揮
하고보면 凡人이 化하여 聖人이 될지라. 然하면 무엇보다도 爲先浩然의 氣를
養하여야 하겟다. 所謂浩然의 氣라 함은 善化된 意志-니 能히 意志를 鍛鍊하
야 性善에 融合케할 時는 此를 浩然의 氣라 한다. 換言하면 人의 性은 元來
善하나니 學하면 聖人이 될 만한지라 棄하여 不顧하면 此를自 暴自棄라 하
나니 孟子曰自暴者는 可히 더불어 有言치 못할 것이요. 自棄者는 可히 더불어
有爲치 못할것이니 言이 禮義-아님을 自暴라 謂하고 吾身이 능히 仁에

居하고 義에 由치 못한다 함을 自棄라 謂하나니 仁은 人의 安宅이요. 義는 人의 正路라. 安宅을 曠하고 居치 안하며 正路를 捨하고 由치 안하니 哀歎다 하엿도다.

(라) 政治論 修學의 結果는 天眞의 倫理的을 暴露함에 在하니 苟히 人이 修爲의 方法에서 成效할 時는 社會의 秩序야말로 스스로 整然하고 海内の 狀態는 스스로 平然하야 四海가 揚波치 안함과 如할지니 堯舜의 治는 卽 是라 孟子의 夢想處는 卽此點에 在하다 하노라. 如斯한 社會는 倫理的 社會이라 此와 相對하야 政治的 社會가 有하나니 政治的 社會는 優勝劣敗와 生存競爭이 行하는 社會이었다. 그 原動力은 卽 物理的 勢力이라. 人民이 君主의 命令을 順함은 順이 아니요. 屈이니 順하는 者는 心服함이요. 屈하는 者는 力의 不足함이라. 孟子는 此二個의 社會를 區別하야 天下-有道하면 小德이 大德에 役하고 小賢이 大賢에게 役하며 天下-無道하면 小-大에 役하고 弱이 強에게 役한다 하엿다.

個人의 精神은 社會現象의 淵源이니 換言하면 社會現象을 司配하는 者는 卽 個人이로다. 然한데 個人의 焦點은 人生의 太初로부터 存在한바 慾望이니 衣, 食, 住의 慾望이 卽 是로다. 此慾望을 滿足키 爲하야 人生은 活動하는 者-니 此를 達치 못하면 倫理는 如何할고 古言曰衣食이 足한 然後에 禮義를 知한다 함과 如히 衣食을 要求하는 慾望과 倫理를 尊重하는 觀念과는 人生의 兩端이로다. 그럼으로 孟子曰恒産이 無하고도 恒心이 有한 者는, 오즉 士-能함이 有하거니와 若民則恒産이 無하면 因하야 恒心도 無하는지라. 恒心을 有케하랴면 民의 産을 制함만 不如하도다. 말미어 明君이 民의 産을 制함에 반듯이 하여곰 仰하야 足히써 父母를 事하며 俯하야 足히써 妻子를 畜함으로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死亡을 免하나니 然後에 驅하야 善에 之하는 故로 民의 從함이 輕하다 한다. 然하면 民의 産을 制한바 法은 如何한고 今玆에 그 主要한 者를 擧하면

- (一) 民의 時를 奪치 안할 事
- (二) 數罟斧斤의 禁令을 設할 事
- (三) 民의 人口를 應하야 田地를 頒與할 事
- (四) 賦租를 輕히 할 事

그런데 孟子는又行政機關運轉을 爲하야 相當한 租稅를 徵集할 必要가 有한 事를 認定하엿나니 白圭가 二十의 其一을 執코저한대 此는 堯舜의 道-아니라 排斥하엿나니라 此와 如히 政治의 行하는바는 人의 忍치 못할 心의 發現에 在하나니 故曰人은 不忍人之心을 皆有하엿스니 先王은 不忍人의 心을 有하야 이에 不忍人의 政을 有한지라. 不忍人의 心으로써 不忍人의 政을 行하

면 天下를 治함은 可히 掌上에 運함갓다. 是로 由하여 孟子의 政治學은 左와 如히 約提함을 可得할지니

(一) 不忍人之心 (二) 不忍人之政

右는 人類의 生慾을 基底로 하여 出發한 者이라. 此生慾을 滿足케한 後에 禮을 修하고 樂을 講하여써 彝倫을 그대로 發揮하고 天眞의 性善으로 하여곰 그 光明을 透徹케 하고저 期한 者-로다.

結 論

以上에 論述한바는 孟子가 熱心主張한바로 所謂孟子의 本領이라 하겠다. 人性의 善을 主張하고 一方으로는 生慾의 必然을 主張하였나니 甲은 倫理의 假定이요, 乙은 政治의 假定이라. 此外에 慾이 有하니 此는 性善과 相對적으로 存立하여 意志의 善的 發現을 妨碍하는 者이라. 그런데 慾과 生慾과는 偶然的 必然的의 差異가 有하니 偶然的되는 者는 制함이 可하되 必然的되는 者는 制키 不可하다. 그리고 生慾의 溢流한 者- 卽 慾이 是임으로 心理的 二元이라 하나니 生慾이 勝한 者는 常人이요, 善性이 勝한 者는 賢人이라. 吾人은 以上에 孟子學說의 系統을 論하고 更進하여 此系統과 關係한 者를 簡單히 論코저한다.

(一) 孟子는 熱心으로 性善함을 主張하였스나 或人은 告子の 言으로써 性이 善도 無하고 惡도 無하여 能히 善도 할만한 者-며능히 惡도 할만한 者-라 하며

(二) 孟子는 又分業의 不可缺함을 認定하였나니 天下의 人이 心을 勞하는 者도 有하며 身을 勞하는 者도 有하여 心을 勞하는 者는 人을 治하고 身을 勞하는 者는 人에게 治를 맞는지라 人을 治하는 者는 人에게 食하고 人에게 治하는 者는 人을 養하나니 是-天下의 通義-니라

(三) 其學說이 孔子와 異한 點은 (一) 性善을 主張한 事 (二) 仁義를 併稱한 事 (三) 主觀的되는 事

附 告 子

孟子의 性善을 提唱한 以來로 性の 說은 思想界의 一大渦流를 惹起함과 如하나니 告子の 孟子에 對한 辯論과 如함이 其一例로다.

告子の 事績은 未詳하나 孟子七便中에 散在한 理論을 見하면 當時의 一大思想家로 그 想이 決코 孟子에 不下함을 可知할지라. 그의 學說에 依하면 善惡은 既發한 後의 向背의 氣象에 就하여 云한 者이나 性은 既發, 未發의 分이 無하나니 故로 曰生之謂性이라 한다. 然하나 性은 抽象의 空名이 아니요.

具體的 實在이라. 換言하면 善될만하고 惡될만함으로 敎育의 如何에 依하여
 或은 善혹은 不善이 될지니라. 故로 曰『性은 湍水와 가튼지라 東方으로 決
 한즉 東으로 流하고 西方으로 決한즉 西에 流하나니 人性이 善不善에 無分
 함이 水의 東西에 無分함과 恰似하다.』 하였고 又曰『性은 杞柳와 如하고 義
 는 杯椀과 如하여 人性으로써 仁義를 爲함이니 杞柳로써 杯椀을 爲함과 如
 하다.』 하나니 此 卽 人性으로써 單히 可能性이라 함이 明白하도다.

荀 子 (傳記)

荀卿의 名은 況이니 趙人이라. 孟子後數十年의 年十五에 齊에 遊學하고 後에 楚蘭
 陵令으로 終하니 楚人이 追稱하여 荀卿이라 하다. 그 著書三十三篇은 畧우 繁에 失
 하였다 할지나 義理의 明晰함은 孟子의 能히 及할바이 아니로다.

倫 理 論

(一) 人性은 惡하니라. 荀子曰凡性者는 天이라. 可히 學치도 못하겠고 可히
 事치도 못하겠다 하였고 又曰性者는 吾-能히할바-아니라 하고 又曰生의 所
 以然者-이론 性이라. 卽 生의 自然이 性이라 하엿스니 如斯히 性은 抽象과
 具體의 兩方으로 觀察하였다. 既히 孟子論章에 推測함과 如히 性惡論은 生慾
 을 根底로 하고 出發한 者-라. 그림으로 人이 生하여 利를 好하며 惡을 疾하
 며 耳目의 欲으로 聲色을 好함이 有하나니 利를 好하는지라. 爭奪이 生하고
 辭讓이 滅하며 惡을 疾하는지라. 殘賊이 生하고 忠信이 亡하며 聲色을 好하
 는지라. 淫亂이 生하고 禮意廉恥가 絶하나니 惟컨대 人의 情性에 從하면 社
 會의 秩序는 紊亂하여 治安의 道를 得치 못 할지니 此-人性이 惡한 明証이
 로다. 今人이 饑하되 長者를 見하고 敢히 先食치 못함은 將次讓코저 함이며
 勞하되 休息을 求치 못함은 將次代코저 함이니 무릇 子가 父에 讓하며 弟가
 兄에 讓하고 子가 父를 代하며 弟가 兄을 代하는 此二行은 皆性에 悖하며
 情에 反함이니 此實孝子의 道-며 禮義의 文理니라. 故로 性情에 從하면 卽
 辭讓치 못할지요. 辭讓하면 性情에 悖함이니 此로 觀하면 人性의 惡한 事-明
 白하도다.

既히 人性은 惡하니라. 社會自然的 狀態는 卽生存競爭의 一大修羅場이니 此
 人性活動을 概括하여 慘虐한 光景을 呈함에 至치 안케하는 者는 禮義가 卽
 是로다. 苟히 禮義에 由하여 行할 時는 小하얀 修身에 足하고 大하얀 國家를
 治하나니 此乃禮義의 二用이라 한다.

그런데 禮義는 外로부터 人을 鑄型하는 者인 故로 個人에 對하여야는 大한
 苦痛을 感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로다. 此는 自然이 아니요. 人爲-며 人爲

는 卽 僞-니 聖人은 僞의 成功者-라. 荀卿曰『僞積而化之爲聖』이라 하였다. 詳言하면 聖人은 僞-積하여 化한 者-나 本然의 性은 아즉 撲滅치 못하였다. 故로 曰聖은 性僞合然後의 名稱이라 함이며 又曰聖凡의 差는 程度에 由함이요. 腦髓의 差에 由함은 아니라 하였도다.

禮는 修爲의 惟一工夫-니 此는 個人에 對하여 獨然할 뿐 아니요. 亦是國家에 對하여도 同然하다. 말미어 禮를 隆하고 義를 貴히 여기는 者는 其國이 治하고 此와 反對로 禮를 簡히 하고 義를 賤히 여기는 者는 其國이 亂하다 하였다. 何如튼지 荀子は 禮로 하여곰 天下를 經濟하는 最高의 方法으로 主張하였다. 此主張을 解剖的으로 說明하라면 이러하다. 大抵人類의 力은 도저히 저 猛虎野豕의 類를 對抗키 不能하나니 此點에서 吾人類는 爲先社會를 成할 必要가 生하고 社會를 成하여 人類가 相會함에는 반듯이 上下의 分이 無치 못하겠다. 萬一上下의 分이 無하다 하면 卽 亂에 至할지니라. 然하나 力이 中에 不及하고 走-馬에 不及하거던 牛馬를 能히 役用함은 何로써인가 卽 人은 能히 羣하고 彼는 能히 羣치 못하는 咎답이며 又人은 어찌써 能히 羣하는고하면 卽 分으로써-라 할 것이며 分은 어찌써 行하는고 하면 卽 義와 禮로 써라 한다. 禮로써 分한즉 和하고 和한즉 一이 되고 一인즉 多力하고 多力한즉 强하고 强한즉 勝物하나니 말미어 宮室도 可히 得居하며 四時를 序하고 萬物을 裁하여 天下를 兼利한다 하노라.

그런데 荀子の 言으로 觀하면 禮의 淵源은 左와 如하다.

(一) 客觀的...理 (天地, 先祖, 君師)

(二) 主觀的...情 (人情)

그 淵源의 異함을 從하여 禮의 種類도 亦二樣의 別이 有하니 甲은 客觀的 淵源을 有한 者-卽 理로써 基底된 者인바 理에는 又種種의 別이 有하니 或은 人生의 淵源된 者或은 天下의 亂을 恐하여 人爲的인 者-是요. 乙은 主觀的 淵源을 有한 者-卽 情으로써 基底한 者이니 此는 人爲를 加한 것이라 한다.

政 治 論

(一) 國家組織 人民의 歸住하는바-是 卽 王이니 王은 卽 德의 存한바-라 그럼으로 大德功이 有한 者-아니면 왕될 價値가 無하다 할지라. 何者오 하면 王은 素定한 位가 有치 안함으로써-라. 말미어 天子에는 禪, 伐, 讓, 放이 無하나니 堯舜은 皆有德의 人이라. 堯는 그 有德임으로 天子가 되고 人民은 堯其者를 不知하고 但其德에 服할 것 뿐이라. 然한데 舜의 德은 又堯에 異함이 無함으로 堯에 次하여 天子가 되었나니 是-堯로써 堯를 代하고 德으로써 德

을 代함이라. 人으로써는 堯舜의 別이 有하나 德으로써는 異한바-無하도다.

天下는 天下의 歸住하는바 卽 德이라. 德의 在한 處-甲에 歸하며 乙에 移하며 或은 丙에 轉함으로 人은 異하다 할가망정 德은 오즉 一이로다.

(二) 政治術 君子의 德은 風이요. 小人의 德은 草-니 草上에 風하면 必偃이라하니 此는 正히 孔子의 政治腦髓-라. 身으로써 天下에 先하면 天下-化치 안힘이 無하다 하니 大學에 이른바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와 其意-甚同하니라 故로 此派의 政治는 政治術이 아니요. 自家의 人格이 卽政治의 中心이로다. 荀卿도 亦孔門의 舊를 不失하고 政治는 身으로써 天下에 先한다 함에 在함과 同時에 禮樂으로써 治平의 惟一機關이라 하엿다.

(三) 刑 荀子曰刑이 罪에 마즌 則治하고 刑이 罪에 맞지 못한 則亂하는지라. 그리고 法은 既發의 末을 制하는 바-며 嚴刑은 民心을 制束하는바-라 말미어 무릇 人을 刑하는 本은 暴을 禁하고 惡을 惡하야 懲하는 故로 治한 즉 刑이 重하고 亂한즉 刑이 輕하다 엿도다.

……(荀子篇完)……